

환경운동이론의 현재와 미래

신연재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1.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환경운동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기울여졌다. 그 동안 우리는 이 이론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진전을 거두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은 어떻게 다르고, 환경운동은¹⁾ 기존의 사회운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어떻게 다른가? 환경운동이 신사회운동의 한 범주라고 해서, 과거의 사회운동들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라면, 기존의 환경이론이나 사회운동이론으로는 환경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환경운동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면, 기존의 이론들이 환경운동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더구나 환경운동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이 아직도 국가 차원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정치와의 함수 관계는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은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토대에 기초를 두면서도, 동시에 기존 정치와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환경운동은 기왕의 국가 중심적인 태두리를 벗어나, 국가와 속성을 달리하는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환경운동은 우리에게 이처럼 상반되는 정향들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과제들을 각각의 배타적 시각에서 설명한다면, 환경운동이론이 이론으로서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환경운동에 내포된 다양한 차원과 정향에 주목하여, 우선 환경운동이론의 혁신성, 독자성, 그리고 배타성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탈냉전 시대에 변화된 부분-환경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변화하지 않은 부분-환경운동의 국내적 기반 심화와 정치화-에 대한 이론적 대응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밝힌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운동이론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합된 하나의 독자적 이론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넓은 의미의 환경운동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모든 집합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모든 집합적 사회운동을 환경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준금, 1995 : 20-21 참조. 그러나 사회운동이 반드시 특정 집단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집단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신사회운동과 환경운동

(1)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선진 공업국들의 전통적 정치 양식을 중지시켰던 집단행동의 열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한다. 그것은 후기산업사회의 구조적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목표, 조직, 구성원,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이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그것을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으로,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을 구사회운동(old social movements)으로 규정했다.²⁾ 이른바 신사회운동은 환경, 여성, 평화, 민권, 반핵, 소비자 보호 운동 등을 망라한 것이다. 각각의 운동은 대체로 방법, 구성원, 가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기반이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구사회운동과 판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Douglas & Wildavsky, 1982 ; Johnston & Klandermands, 1995 ; O'Riordan, 1995 : 5)

사회과학자들은 흔히 신사회운동의 대등 요인과 속성을, 후기산업사회의 구조적 여건에 대한 불만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신사회운동을, 새로운 형태의 저항운동이자 선진 공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산물로 파악한 것도, 그러한 경향 때문이었다. 일부 선진국에 한정된 현상이기는 했지만 1950-1960년대는 급속한 경제 팽창, 복지국가로의 전환과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강화, 경제적 번영의 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였다. 그러나 산업사회 단계와는 달리,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 영역은 물론 소비, 서비스, 사회 관계까지도 통제함에 따라, 신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의 회복을 추구하게 된다.

신사회운동에 속하는 운동들은 목표 정향, 구성원, 조직 형태, 가치 면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첫째, 구사회운동이 국가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획득에 목표를 두었다면, 신사회운동은 국가로부터의 해방에 목표를 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다면적 간섭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국가 제도를 협조적 공동체들간의 연계체제(networks)로 대치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둘째, 신사회운동은 더 이상 전통적 계급 구분에 따라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사회운동의 특징이었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좌익과 우익의 구분은 신사회운동에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고, 무엇에 노력을 집중하는가? 구사회운동이 특정 계급, 즉 노동 계급의 운동이어서, 이 계급의 이해관계-조직권, 투표권, 노동 시간 등-를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신사회운동은 시민들에게 사회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집단재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다.(Cohen, 1985 : 670 ; Kitschelt, 1981 : 275-276) 공사 영역의 구분이 필요 없는, 보편적이고 비계급적인 환경, 군축, 평화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구성원을 동원하고 국가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고도로 구조화되고 서계적인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기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회운동은 이러한 전통적 조직 형

2) Cohen, 1985 ; Eder, 1985. 넓게 보면 사회운동은 근대성의 모순을 표출하는 집단적 사회 활동의 형태이다. Giddens, 1990. 신사회운동은 근대성의 모순을 폭로하는 중심적 사회제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좁게 보면, 사회운동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Shaw, 1994 : 651.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성, 생활양식, 환경, 인종 차별, 전쟁 등의 사회적 모순 때문에 빚어진 근대의 현상으로서, 계급에 기초를 두고 구성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따르면 노동운동과 농민 반란은 구사회운동의 대표적 예이다. 구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18-20. 세기 초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다. 신사회운동은 대중 동원을 수단으로 사회 변동이나 수호를 활동의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신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Scott, 1990을 참조할 것.

태의 도입을 거부한다. 후기산업사회의 제도적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관료화된 사회를 거부하고 집단적 유대와 개인의 자율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사회운동은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자발성, 비위계적 구조, 분권화를 조직의 형태로 추구한다. 신사회운동이 참여, 자발성, 비위계적 조직을 중시하는 한, 그것의 전략과 전술은 전통적 정치의 그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전통적 정당정치, 로비 활동은 그들의 활동에서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중집회, 공간 점령, 연좌시위가 주요 전략 전술로 인정되고 있다.(Melucci, 1980 : 794 ; Offe, 1985 : 930)

넷째, 잉글하트(Inglehart)에 의하면, 신사회운동은 서구의 가치체계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변화하는 사회 변동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할 만하다. 신사회운동은 경제성장과 이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것들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억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신사회운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협력 관계에 토대를 둔 경제제도의 수립, 균형잡힌 성간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 개인의 자기 개발, 사회적 유대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³⁾

이제까지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구사회운동이 국가 중심적 형태인 반면, 신사회운동은 시민사회 중심적 형태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구사회운동은 정당정치제도 내부에 위치하고, 신사회운동은 주로 전통적 정치제도 외부에서 활동하는 자율적 운동이다. 둘째, 전자의 목표는 정치적 대표와 의회를 통한 정치 개혁과 민권 확보에 있지만, 후자의 목표는 시민사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수호하고 국가를 통한 입법 개혁보다는 시민사회의 문화·생활 양식 재정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전자가 서계적 공식적 형태의 운동조직을 구축한 반면, 후자는 권위적 구조보다는 대중이 참여하는 비공식적이거나 비구조적인 조직 형태를 선호한다. 넷째, 구사회운동이 변화 달성 수단으로 정치제도를 중시하지만, 신사회운동은 보다 새로운 형태의 직접 행동, 정치를 통한 변화보다는 문화의 재정립 활동을 중시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구사회운동은 조직을 통한 정치적 이해관계 동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신사회운동은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신사회운동의 조직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사회운동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는가? 서구에서 신사회운동은 어떻게 기존의 이익표출체제에 통합되었는가? 그것은 과연 자신을 변화시켜 기존 체제의 일부가 되었는가?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1960-70년대의 신사회운동이 그 시대 역사의 산물이라고 파악한다. 즉, 선진자본주의의 특정 구조-팽창적인 관료제와 복지국가-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의 형태와 가치를 들여다보면, 이 운동이 기존 질서에 대한 반동으로 제기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복지국가나 선진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치, 참여자, 목표 정향, 형태를 가진 사회운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신사회운동이 표방하는 가치와 속성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차티스트운동(Charlist movement), 서독의 평화운동 등에서도 발견된다. 상이한 시대, 상이한 사회구조에 속한 사회운동이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사회운동의 목표, 형태, 구성원, 가

3) Inglehart, 1977. 예컨대 여성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권리, 임금의 평등성 추구보다는 자기 개발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주력한다.

치가 현대 선진공업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근거를, 그리하여 신사회운동이 전적으로 새로운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음을 간파할 수 있다.(D'Anieri et al., 1990 : 445)

(2) 신사회운동과 환경운동

선진권에서는 1960년대 중엽부터 환경 파괴의 도전에 거세지면서 경제성장의 신화가 흔들리게 된다. 이 때부터 환경 오염이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환경운동의 태동을 자극한다. 이 시대 환경운동의 특징은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환기시켜 환경 문제에 관한 사회의식을 고양하고, 특정 부분의 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구미의 정치의제에서 환경 문제가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고, 환경 오염과 자연자원 고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었다. 말하자면 1960년대는 구미 대중의 환경운동과 환경의식이 최초로 폭발한 시기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권의 정부들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구조와 조직 그리고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⁴⁾

그러나 1970년대 이전의 환경정책은 특수한 환경 문제가 정치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의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계에 비추어 보면, 국제 차원은 커녕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은 시기상조였다. 1972년, 환경의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스톡홀름 회의 이후, 각국에서는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이 본격적 진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 회의를 계기로 생태학적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환경 문제의 포괄성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전담 부처를 설치하며 일부 환경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는, 환경운동의 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 오염을 초래하더라도 환경 보존보다는 경제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노선을 고수했던 한, 개도권에서는 오히려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오존층 파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환경운동의 세계적 확산에 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다수의 국제환경조약-예컨대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이 체결될 수 있었다. 구미의 환경운동은 이 단계에 이르러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배출에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복합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기후 변화 협약'을 비롯한 1990년대의 환경 대협상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은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다. 1992년의 '리우 회의'는 환경과 개발간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켜,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서 진보를 이룩한 국제환경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동시에 이 회의는 환경운동이 거둔 일종의 쾌거이자, 환경운동을 촉진한 또 하나의 동력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 협력 강화,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가, 비정부기구들(NGOs)의 영향력 증가, 국제기구-UNEP, UNDP, GEF, WHO, World Bank 등-의 적극적 참여, 환경 파괴의 대가에 대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식 고조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 집단, 국가는 지구환경의 이익에 부합되는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어 책임의 수준을 높여갔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개도권 국가들은 환경 파괴의 대가가 어떤 것일지라도 공업화 정책을 강

4) 이하 환경운동에 관한 설명은 신연재, 1994 : 877-885 ; Dwivedi, 1986 : 381 ; Brenton, 1994를 참조할 것.

행하면서, 환경운동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비록 권위주의적 정부의 존속과 사회운동에 기반을 둔 정치 전통의 부재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였으나, 최근 개도권에서도 환경운동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선진권 국가들과는 달리 문제별 항의운동에 그치는 한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환경운동이 개도권-한국, 멕시코, 그리스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변화가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국제 차원의 환경운동이 증강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환경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환경운동은 좌우익의 전통적 관심사인 분배와 재분배 문제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 태도는 탈근대적 신념-예를 들어 시민 참여와 자유-에 기초를 둔 것이다.(Dalton, 1994 : 121-134 ; Paehlke, 1989 : 885) 그것은 대중 중심적 조직과 분권화된 형태의 참여를 추구하고, 녹색소비자주의에 기반을 둔 채 생활정치를 지지하는 새로운 운동이다. 이는 탐욕적 가치체계나 생활양식의 광범위한 변화 없이는, 정치입법이 기존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고 본 결과였다. 환경운동은 이 점에서 국가를 통한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시민사회의 의식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운동은 평등주의적 문화 정향에 경사된 것이기도 하다.⁵⁾ 게다가 여타 신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은 엘리트 주도형 정치에 반대하는 엘리트 도전형 운동이다. 대부분의 환경운동이 지도자의 역할을 축소한 비서계적 형태의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환경운동의 동력은 자원의 평등한 분배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엘리트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Ellis, 1997 : 886) 그것은 신사회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구사회운동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구사회운동의 속성을 다수 간직하고 있다. 어떤 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파괴에 대처하는 데 정치인을 이용하고, 또 다른 환경운동단체들은 전통적 형태의 서계제와 회원제에 집착하기도 한다.⁶⁾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하게 되는가?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구사회운동도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여 정치 행위자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신사회운동도 정치 현실의 압력 아래서 목표를 달성할 필요에 따라,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운동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법 개혁과 정치적 접근에 관여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환경운동이론의 현재

환경운동은 1960년대 이래 정부의 환경정책에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환경운동은 국가 및 국가 하부 차원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환경 문제에

5) Douglas & Wildavsky, 1982 ; Rayner, 1992 : 84. 다수의 분석가들은 신사회운동의 속성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운동은 정치권력보다는 문화 영역-가치, 생활양식 등-에 더 큰 관심을 둔다. Scott, 1990 : 16. 따라서 여성, 동성애자, 소수인종 운동은 지배적 가치-가부장제, 양성주의-에 대하여 집단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사회운동은, 문화 및 시민의 자율성 확보 투쟁이 정치적 법적 투쟁을 유발할 때, 비로소 정치적 성격을 갖게된다.

6) 예를 들면 Greenpeace의 조직 형태는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대중이 그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Shaw, 1994 : 653.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의 변경, 공공 정책의 우선 순위 조정, 환경 정책의 강화를 요구했고, 또 상당 부분을 관철했던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간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운동의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196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이론화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조직과 규모, 지지도, 활동이 이론적 분석의 표적이 되었지만, 특히 사회과학은 그 구성과 속성에 주목했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이 매우 다양한 개인, 집단, 이해관계들로 구성된 것임에도 정치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었던 방식은 어떤 것인가? 환경운동의 가치, 태도, 목표, 전략, 전술은 지지할 만한 것인가? 환경운동이 사회과학에 보낸 이론적 해답은 첫째, “사회 정치 생활에는 ‘자연의 한계’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 정치 생활은 사회의 필요가 아니라 ‘자연의 한계’라는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아닌 존재들, 즉 ‘비인간 존재’도 내면적 도덕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이론은 과거에 무시했던 ‘자연의 한계’와 ‘비인간 존재’를, 관심사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Martell, 1994 : 138) 환경운동은 이런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이론적 시각 개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사회의 환경운동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따라서 환경운동이론도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Lowe & Rudig, 1986 : 531 ; Crook et al, 1992 : ch.5)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환경운동을 비롯한 신사회운동이 활발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세계의 보편적 경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환경운동이나 시민사회를 재활성화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의 사회운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Walker, 1994 : 684) 왜냐하면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환경운동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예컨대 정치체제의 폐쇄성이나 개방성-이 다르면 이 운동의 참여도, 지지도, 조직 형태, 목표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환경운동에는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과 함께 상이한 문화, 여건이 기초 변수로 작용하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 이론의 배타성과 통합성

환경운동의 특수성은 국가별로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목표의 수준, 환경이데올로기에의 영향을 통하여 환경운동이론의 배타성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은 ‘계급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고, 계급간 갈등이 모든 국가 내부에,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북’의 번영은 ‘남’을 착취함으로써 가능했고, 이것이 지구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결국 주요 지구환경 문제-기후 변화, 해양 오염,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는, ‘북’의 경제적 착취와 소비적 생활양식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들이 ‘계급 패러다임’에 시각을 고정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구미의 ‘자유주의자’들은 환경 문제의 기원은 국제 국가 제도의 부정확한 정책에 있으므로,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 외교와 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구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처럼 환경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 외교와 레짐이 중요하다면, 환경운동의 영향은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 밖에 없다. ‘다원주의자’들은, 환경 문제는 자원 보호 규범이 차지하던 자리를, 낭비와 방종을 조장하

는 규범이 대신 차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 보전에 관한 개인들의 책임의식 고양에 환경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이해한다. 이들은 그 수단으로 환경운동, 대중교육, 정보의 자유 유통을 통한 행동과 문화의 변화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에 관한 사회과학이론들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되 여타는 배제하는 '패러다임 격리'(paradigm isolation)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세 패러다임의 목표는 모두 필요한 것이어서, 특정 패러다임에의 배타적 의존보다는 셋의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패러다임 격리를 고수한 결과는, 상호 분리되고 모순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특정 패러다임에 의존한 환경운동이론이 비현실적인 것이기는 하여도, 대중의 환경 문제 인식과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라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격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Sunderlin, 1995 : 211-220 ; Dodson, 1995 : 74)

패러다임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각 패러다임 지지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패러다임의 목표가 상호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패러다임 통합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상호 인정은 각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레짐 구축에 반대하는 계급 패러다임도 빈민층의 이해 관계를 보다 잘 대변하는 레짐 구축에는 찬성할 수 있고, 빈국에서는 문화와 가치 변용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패러다임도 경제 개혁이 대중 환경교육에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해결 목표의 수준이라는 면에서 보면, 환경운동이론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하나는 환경운동이 순수한 자연보전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환경운동이 여타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환경운동단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서 사회구조 개혁에 나설 것과 여타 사회운동단체와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후자는, 전자가 주장하는 대체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재활용은 환경에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양자의 시각은 서로에 대하여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환경운동이론 내부에 긴장이 감도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주요 구성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권위주의, 인종주의, 무정부주의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급진적 환경운동은, 환경 문제의 원인을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이익의 추구로 돌리고 강제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와 파시즘에 더 크게 의존할 수도 있다.⁷⁾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모두 물질 획득과 성장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환경 보전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위축 일로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반시장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둔 반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환경운동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는가? 공존할 없다면 사회주의는 환경운동이론에 적대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환경운동이론은 사회주의를 약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결별해야 하는가? 사회주의와 환경운동이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마르크스가 언급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환경운동이 주장하는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고, 둘째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와 시장

7) 그 예로 Bramwell, 1989 ; Eckersley, 1992 : 11-17 ; Ophuls, 1977 참조. 이들은 하단의 '공동 목적의 비극' 테제에서 강제적 필요성을 도출함으로써, 그의 주장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의 모순 분석에 유용하며, 셋째 일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은 급진적 환경운동과 마찬가지로 분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환경운동이론과의 관계를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해석일 뿐 본질은 아니다. 마르크스 역사철학의 요체는,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인간에 의한 자연의 변용이나 비인간 존재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고 변형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자, 자연의 착취와 변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조직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Benton, 1993 : ch 2) 또한 사회주의이론은 '환경운동이론의 핵심인 '자연의 한계', '비인간 존재'에 대한 의무를 외면한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이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추느라 생산성, 성장, 생산력 증대에 시각을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환경-사회 관계 이론으로서 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인 것처럼 사회주의는 고유의 평등 및 권리 관념에 토대를 두고, 인간 중심주의와 풍요주의를 극복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관한 관념에 변경을 가하는 변모를 꾀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변화가 세계질서와 환경 문제의 변화와 보조를 같이 한다면, 환경운동이론이 사회주의와 융합하여 타당성을 보강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비환경 문제이되 환경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유, 정의, 권위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으므로, 여타 이데올로기들과의 조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Martell, 1994 : 154) 결국 문제는 다양한 구성 이데올로기들이, 일관성을 갖춘 통합적 이론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환경운동이론은, 화학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들을 끌어 모은 잡동사니에 불과하다.(Carter, 1993 : 40)

(2) 이론의 혁신성

신사회운동은 과거의 사회운동과 철저히 다른 것인가?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은 구사회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환경운동이론은 기존의 사회운동이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기존 제도 외부에서 집단행동을 통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표를 증진하려는 집단적 시도라고 규정된다. 이 운동은 공유하는 이해관계나 목표를 집단 활동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제도와 다를 바 없으나, 기존 제도 외부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정당과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운동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사회과학에 새로운 이론을 요구한다.

그러면 환경운동과 사회과학이론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급진적 환경운동가들은, 이 운동이 낙후된 사회과학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Poritt, 1986 ; Dobson, 1990) 즉, 환경의 시각에서 정치와 사회의 분석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환경을 근거로 특수한 정치 사회 제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은 전통적 사회운동이론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는가? 환경운동의 발전은 전통적 사회운동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경을 가하는가? 그리하여 환경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가? 이 패러다임으로 정치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환경의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환경운동이론은 사회적 가치와 정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환경운동에 대한 설명 없이는 타당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론화의 대상인 환경운동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어야 한다. 과연 환경운동은 새롭게만 한 것인가? 2장에서 살펴본 듯이 그것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체계, 참여의 확대, 권력의 분산, 대중 중심적이고 비서계적인 조직 형태 등이 그러한 인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구사회운동의 속성을 상당 부분 계승했음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즉, 일부 환경운동단체는 아직도 서계적 형태의 조직을 고수하고 있고, 기존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에 전통적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복합되어 있다면, 환경운동이론은 오로지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해야 옳다. 더욱이 환경운동은 국민국가들의 역사적 경계에 의해서도 단절되지 않는, 환경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연 또는 환경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연과 역사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인지, 누가 환경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환경운동이론을 전통적 이론과 새로운 이론 사이의 중간에 머무르게 한다.

환경운동이론은 그 동인으로 특수한 구조적 여건을 지나치게 중시한 반면, 물역사적 시각의 함정에 빠져있다. 우리는 사회경제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여 속성이 변화되어도, 기존의 사회운동이 일정 기간 존속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운동의 목표 정향, 참여자, 조직 형태, 가치가 반드시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면, 현대의 어떠한 구조가 어떻게 환경운동을 등장하게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D'Anieri et al., 1990 : 455) 환경운동이론이, 후기산업사회 이전 시대의 집단행동과 사회운동 전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이론으로 인정받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이론의 독자성

환경운동이론은 전통적 사회운동이론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이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돕슨은 환경정치가 다른 정치와 상이하기 때문에 환경운동이론이 독자적 이론 범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Dobson, 1990) 그러나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환경운동이론에는 분명히 전통적 사회과학이론과 대립되는 다수의 측면이 있다. 자연의 한계와 비인간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운동의 주장은, 새로운 사회정치제도에 관한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독자적 이론의 구축에 필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더라도, 환경운동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친환경적 사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하여 전통적 해법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 문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들과 결합해야 하는 숙명이 환경운동이론이 독자적 이론으로 존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환경정치이론의 독자성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일부 가치들-평등, 정의, 지방분권화, 참여민주주의, 자급자족, 대체 기술, 평화주의, 국제주의-이 환경운동의 목표 달성에 유용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본래 환경운동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회과학이론이 일찍부터 중시해 온 것들이다. 예컨대 참여의

확대는 여성운동이, 자급자족은 무정부주의가, 평등과 국제주의는 사회주의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이다.(Carter, 1993 : 39-40) 따라서 평등, 정의, 참여 등의 문제는 환경운동이론보다 전통적 정치이론으로 더 잘 분석할 수도 있다. 둘째, 환경운동이 반드시 분권주의와 다원주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권주의와 불간섭은 환경 보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이 사회과학이론에 지각 변동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이 큰 충격을 몰고 왔다고 해서, 전통적 이론이 폐기되거나 환경운동이론이 완벽한 독자성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환경운동이 이론의 변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자연의 한계, 비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도입하여 전통적 사회과학이론의 변화를 시도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비환경 문제의 해결까지도 모색하는 한, 환경운동이론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Martell, 1994 : 139, 161-162) 환경운동이론은 여전히 미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4. 환경운동이론의 한계와 극복 방안

(1) 환경운동의 국제화

로즈노의 견해를 빌자면 탈냉전 시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조직적 통합성은 결여됐으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대중운동-환경운동, 반전운동, 군축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의 등장이다. 그 공통성이 체제 전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인 한, 이것들은 신사회운동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대부분 국제 차원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탈냉전기의 세계를 괴롭히는 권위의 위기에 적실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Rosenau, 1990 : 411) 사회운동은 본래 국가 내부의 시민사회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국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모순의 제거에 그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다. 설령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 국제적인 것에 맞추어지더라도, 사회적 문화적 정향을 강하게 지니는 것이 통례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목표, 조직 형태, 가치 등이 이익집단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회운동과 국제정치는 존재 영역이 상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는 거대한 구조와 사회 너머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운동은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사회는 국가와 국제체제(states system)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사회운동을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national civil society)에 가두어 놓는 시각에서 보면, 사회운동의 자원 동원 및 정체성 표출 능력이 분석 지표로 중요하다. 사회운동과 국제정치를, 내부와 외부라는 상이한 영역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그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인식 경향 때문에, 사회운동의 이론화 작업이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음에도, 사회운동과 국제정치의 이론적 연계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Cohen & Arato, 1992)

신사회운동의 일부인 환경운동도, 근대국가의 정치 영역과 구분되는 사회생활 영역 내부의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환경운동과 국제정치의 이론적 연계는 당연히 미약할 수 밖에 없었고, 근대 사회의 정치 담론은 이런 단절을 재생산해 왔다.(Walker, 1994 : 672) 사회운

동과 국제정치의 분리는 국가의 안과 밖, 위와 아래를 서계적으로 구분하는, 근대 정치 담론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공간적 확장, 즉 정치적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연계체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국가와 국제체제는 환경 운동에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환경운동은 환경에 대한 위협의 정체를 밝히고, 국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했는가? 탈냉전 시대 지구환경 영역의 진정한 권위는 환경운동에 있는가?

절차, 규범, 정당성, 충성, 책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은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여서, 환경 파괴는 특정 국가와 지역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가 국가로부터 세계 차원으로 확산되어 왔다. 다수의 환경운동이 기존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대 정치의제-환경, 평화, 여성, 개발,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초국가적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환경운동의 중요성이 커졌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제환경운동의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제 또는 지구 차원의 환경운동이론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보자면, 환경운동은 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간 정치와 국가내 정치의 구분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가치해진 것이,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가장 현저한 속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Rosenau, 1990)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생겨나, 그것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이나 여타 시민사회제도들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행위자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행위자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면서 국제정치는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시민사회와 국제정치의 단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은 더 이상 국가의 포로가 아니다. 각국 외교정책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환경운동이 국경을 넘어선 접촉, 연합,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NGOs)는 ‘세계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구성 요소이지만, 국제 정책 결정 체계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는 환경운동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환경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⁸⁾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이 과정에서 국가, 정부간 기구, 영리기구가 필적할 수 없는 자산을 축적했다. 비정부기구들의 이런 활동에 토대를 두고, 환경운동의 세계적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이론은 이같이 국가 중심적 근대 정치 해석에 도전하면서, 국제정치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세계시민사회’ 개념은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과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유용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세계시민사회 개념은 국가권력의 세계화와 그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및 환경운동의 활동 공간 확대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연동시켜 분석해야 한다면, 세계시민사회 개념은 환경운동이론의 인식 지평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한, 세계시민사회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haw, 1994 : 650) 이제 세계시민사회

8) Wapner, 1995 : 320 ; Zurn, 1998 : 643-644. 예를 들면 비정부기구들은 의제 설정, 협상 과정에서의 일정한 역할 수행, 국제환경조약 이행 감시 등의 활동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확보한다.

개념은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과학의 화두가 되고있다. 립슈츠는 주권적 권위의 정치적 정당성과 기능적 효용에 대한 도전, 비정부기구들간의 새로운 연계와 연합이 국가의 쇠락을 가져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세계시민사회'는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집단 정체성의 정치"라고 규정한다.(Lipschutz, 1992 : 398)

비정부기구들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어도, 국제정치 행위자들에게 공동의 인식을 제공하여, 환경운동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세계시민사회'의 토대로 복잡한 연계체제(complex networks)를 구축하고,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 체제를 널리 확대했다는 것도 사실이다.(Clark et al., 1998 : 2-4)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건대, 새로운 연계와 연합이, 나아가 세계시민사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의 우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국가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국가 영역의 시민사회 관념을 세계 영역으로 확대한 세계시민사회 관념은 현실성을 결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것은 세계에 의해서만 제약되는, 국가에 대한 견제 장치이자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가, 국가 같은 '영역 한정적 정치공동체'(bounded political community)라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이러한 인식이 타당할 수 있다. 세계시민사회 개념은 영역 한정성을 내포한 국가 관념과 무관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의 전제인 세계국가의 수립은 요원한 일로 남겨져 있다.(Shaw, 1994 : 65) 그러므로 시민사회를 국가 영역에서 세계 전체로 이관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세계시민사회 개념은 국가 중심주의적인 근대 담론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사회 담론은, 국가의 영역 한정성에 구속되어, 사회운동 일반의 국가에 대한 도전 능력보다는 국가 중심주의적 담론을 재생산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Walker, 1994 : 674)

탈냉전기의 사회과학은 국가 중심주의를 세계주의로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국가 행위자들과 연대한 환경운동이 국가·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사회과학은 여전히 국가 차원의 분석에 안주하느라, 국제 차원의 환경운동을 설명하고 그 적실성을 파헤치는 데 자주 한계를 노출하곤 한다. 사회운동의 일부인 한,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가간 모순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환경운동 연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환경운동이론이 세계질서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이론은 세계 차원으로 확대된 환경운동의 타당성과 한계를 밝히는 데 새롭게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운동과 국가

탈냉전기 정치 행위중 상당수는, 국가간의 경계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 정체성과 연계의 증가에 근거를 두고있다. 예컨대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문제에 관하여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상호 연계를 통하여 세계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적 연계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국가 차원을 초월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거니와, '세계시민사회'의 등장에도 일조한다.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계는 이미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에 지구 차원을 부여했다. 환경운동이 본래 특정 시민사회의 문제였던

것들-오존층 파괴, 사막화, 수질 오염 등-을, 지구 의제로 부상시킨 것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사회운동이 세계시민사회의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면, 세계적 연계체제를 가진 환경운동의 활동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시민사회가 이미 등장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적은 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근거는 오히려 더 많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의 수는 증가했지만, 아직도 '북'의 비정부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간 불균형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권 또한 비정부기구와 국가간 합의를 변함없이 가로막는 장애물이어서, 세계시민사회는 미완의 구조로 남아있다.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비정부기구들이, UN이 주관하는 세계회의에 참석하여 로비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러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남북간, 빈부국간, 선후진국간 차이가 있어서 이들간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Clark et al., 1998 : 33) 비정부기구들은 공통의 절차와 규칙을 개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그것들에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은 회의에서 종속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앞의 설명에서 드러났듯이 UN의 세계회의 과정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기여를 인정하는 주체는, 비정부기구 자신이 아니고 국가이다. 국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력과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주권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 예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군사 방위와 경제개발 전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국가는 비정부기구들의 운동 형태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비정부기구의 시각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는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강화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에 나선다. 새로운 국제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부류의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지만,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비정부기구나 사회운동이 아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국가의 전통적 역할과 국제정치의 우선 순위이다.(Clark et al., 1998 : 35)

환경운동을 위시한 사회운동의 국제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국가 차원의 기반을 초월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운동은 특정 국제관계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모든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운동이 있어야 하며, 국제 차원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공동의 전략을 가진 범국가적 연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환경운동이론의 내면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은 대체로 지방, 지역, 국가 차원에서 문제에 대응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는 전통적으로 대중이나 선거의 영향이 배제된 영역이기 때문이다.(Shaw, 1994 : 655) 경제의 세계화 속도에 비하여 느리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는 아직도 현실적 존재라기보다는 잠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온당할지도 모른다. 시민사회는 아직도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사회운동은 대부분 시민사회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 목표와 연계체제를 갖춘 환경운동 조차도 국가에 기반을 두고, 국가나 국가 하부 차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주의적 시각은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근대국가의 정치 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구조적 역동과의 관련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기술 발전, 가치의 변화, 인간의 이동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Walker, 1994 : 676)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가 어떻게 표현되든, 정치의 산실은 국가이다. 국민국가는 의미 있는 정치생활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근대 사회의 특징이지만,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Shaw, 1994 : 648) 그것은 국가에 사회를 어떻게 대변하고,

국가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갈등의 장이다. 시민사회의 제도들은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국가의 외곽조직이자, 사회집단들이 권력 장악을 위하여 경쟁하는 장이다. 근대성의 편견은, 근대 정치의 국가 중심적 한계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위적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의 상호의존성은 환경 문제의 초국가성을 초래한다. 환경 문제의 초국가성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공동의 필요성을 일깨워, 환경운동을 국제 차원에서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의 이용 및 관리는 주로 국민국가의 관할권 아래 놓여있는 문제들이다. 게다가 환경운동의 온상인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속한다. 환경운동의 대부분이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로부터 발견된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이론은, 서로 다른 두 차원에서 전개되는 두 흐름, 즉 환경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국내적 기반 유지를, 하나의 유기적 체계에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환경운동과 정치

환경운동의 국제화로 말미암아, 이 운동을 빼놓고 국제정치를 설명하기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부류는, 국가 차원의 목표- 예컨대 원전 건설 취소-를 가진 것부터, 국제 차원의 목표- 예컨대 지구 온난화 억제-를 가진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영향력도 복잡적이고 가변적이어서, 그것들은 보다 넓은 시민사회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행위자가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생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체계이다. 시민사회는 사회 전반과 사회집단들이 대변되는 기초 체계 (framework)이다. 그러므로 잘 개발된 시민사회는 정부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다수의 비정부기구를 매개체로 하여 대중의 의사를 집약하고 표현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둘은 힘에 기초를 둔 정부의 자의적 지배를 제약함으로써, 공공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Schmitter, 1997 : 247)

문제는 신사회운동중 다수가 국가권력과 관련된 정치 개념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사회운동의 공동 주제는 의회제를 포함한 국가의 기존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대두된 문화정치와 탈의회정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킨 여성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personal is political')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관계가 정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와 비정치의 전통적 구분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Shaw, 1994 : 653) 환경운동 등의 사회운동은 정치체제보다는 문화에 대한 영향력에 의존한다. 그 문화적 영향력은 국가 차원의 정당이나 의회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운동은, 그 모태를 시민사회로 하는 공간적 한정성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내부에 위치하되,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에 저항함으로써, 국가와 상호 협력 및 갈등 관계를 유지한다. 사회운동이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정치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그리하여 문화운동에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서독의 평화운동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당체제 특히 사민당(SPD)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은, 사회운동과 정치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D'Anieri et al., 1990 : 455) 구사회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출생하여 정치 단위로 발전했듯이, 신사회운동도 정치 현실의 부단한 압력 아래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운동의 대부분은 본래 취지와 달리, 그 조직이 세계화되고 정치화되는 경향을 점차 더 크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화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구 환경운동에 의한 녹색정당 결성과 정치가를 상대로 한 환경로비는, 기본적으로 환경운동에 정치성이 짙게 깔려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단순한 사회저항운동인가, 아니면 확립된 정당인가? 녹색당은 새로운 형태의 정당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정당의 아류에 불과한가? 독일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연립정권의 일원이 되고, 서구 8개국 녹색당들이 연합한 것은, 환경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승화되어야 사회질서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환경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독일과 벨기에의 사례는, 녹색당이 현실 정치에 적용할 경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 녹색당들의 고민 거리는, 녹색당이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에 있다. 독일과 벨기에의 녹색당은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내부 형태와 대외 행동을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다. 즉, 대내적으로는 지도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참여적·비서계적 형태의 조직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여타 정당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 것이다.

서구의 녹색당들은 환경 문제의 해결만을 추구하는 좁은 의미의 환경당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그리하여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중 하나로 취급하는 넓은 의미의 대안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다양한 의제를 지지하는 집단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연계시켜서, 자신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정치운동을 수행해 왔다고 해야 마땅하다. 서구의 녹색당들은 이렇게, 한편으로 신사회운동으로서의 교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전통적 정치 조직과 전략을 추종하는 변화를 보여왔다.(Kaelberer, 1993 : 234) 환경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기반을 보유하지만,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으로서의 속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환경운동의 이런 양면성을 외면한다면,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와의 함수 관계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이론은 반쪽의 진실만을 담을 수 밖에 없다.

5. 나오면서

신사회운동이 그런 것처럼 환경운동도 구사회운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떤 운동이든, 그것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사회구조가 바뀌어도 일정 기간 그 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의 조직 형태가 비서계적인 점, 주요 관심사가 정치권력이 아닌 문화라는 점, 그리고 가치체계가 탈물질주의적인 점 등은, 이 운동이 구사회운동과 단절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환경운동이 엘리트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운동이 구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이탈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이론을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이론은 정치·사회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환경에 관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타

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정치 및 사회 생활은 '자연의 한계'라는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비인간 존재'도 도덕적 가치를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환경운동이론은 사회과학의 이론적 시각을 개혁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사회운동이론에 지각 변동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들-평등, 정의, 분권화, 참여, 평화 등-은, 일찍부터 전통적 사회과학이론이 중시해 온 것들이다. 그렇다면 평등, 정의, 참여 등의 문제는 환경운동이론보다 전통적 사회과학이론으로 더 잘 분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완벽한 혁신성과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인위적 국경을 뛰어넘는 환경의 상호의존성은 환경 문제의 초국가성을 초래한다. 환경 문제의 초국가성은, 국제 차원의 환경운동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의 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국민국가의 관할권 아래 놓여있는 문제들로 인정되어 왔다. 게다가 환경운동의 온상인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존속한다. 환경운동의 대부분이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의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이로부터 발견된다. 그렇다면 환경운동이론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점차 내면화된 정치적 속성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두 흐름, 즉 환경운동의 국제적 확산과 국내적 기반 고수를,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마땅하다.

참고문헌

- 신연재 (1994). "환경 문제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성곡논총』. 25집
- 정준금 (1995).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6권.
- Benton, Ted (1993). *Natural Relations : Ecology, Animal Rights and Social Justice*. London : Verso.
- Bramwell, Anna (1989). *Ecology in the 20th Century : A Histor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ton, Tony (1994). *The Greening of Machiavelli :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London : Earthscan.
- Crook et al. (1992). *Postmodernization : Change in Advanced Society*. London : Sage.
- Dalton, Russell J. (1994). *The Green Rainbow : Environmental Groups in Western Europ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Dobson, Andrew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 Andre Deutsch.
- Dobson, Andrew & Paul Lucardie (1993). *The Politics of Nature : Explorations in Green Political Theory*. London : Routledge.
- Douglas, Mary & Aaron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ckersley, Robyn (1992).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London : U.C.L. Press.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ell, Luke (1994). *Ecology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Oxford : Polity Press.
- Paehlke, Robert C. (1989). *Environmentalism and the Future of Progressive Politic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Ophuls, William (1977).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 A Prologue to a Political Theory of the Steady State*. San Francisco : Freeman.
- Porritt, Jonathan (1986). *Seeing Green : The Politics of Ecology Explained*. Oxford : Blackwell.
- Rosenau, James (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tt, Alan (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 Routledge.
- Carter, Alan (1993). "Towards a Green Political Theory," in Dobson & Lucardie (eds.). *The Politics of Nature : Explorations in Green Political Theory*. London : Routledge.
- Clark, Anne M. et al. (1998). "The Sovereign Limits of Global Civil Society : A Comparison of NGO Participation in UN World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 Human Rights, and Women". *World Politics*. 51, October.
- Cohen, Jean (1985). "Strategy of Identity :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 Winter.
- Cohen, Jean & Andrew Arato (1992).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in Cohen & Arato.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 MIT Press.
- D'Anieri, Paul et al. (1990). "New Social Movement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July.
- Dodson, Belinda (1995). "Beyond Academia".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5, No.1.
- Dwivedi, O. P. (1986). "Political Science and the Environ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XXXVIII, No.3.
- Eder, Klaus (1985). "The New Social Movements : Moral Crusades, Political Pressure Groups, or Social Movements ?". *Social Research*. 52, Winter.
- Ellis, Richard J. & Fred Thompson (1997).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Pacific Northwe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4, No.4.
- Johnston, Hank & Bert Klandermans (1995). "The Cultural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in Johnston & Klandermans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aelberer, Matthias (1993). "The Emergence of Green Parties in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January.
- Lipschutz, Ronnie D. "Reconstructing World Politics : The Emergence of Global Civil Society". *Millenium*. Vol.21, No.3.
- Lowe, Philip & Wolfgang Rudig (1986). "Political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 Melucci, Alberto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
- Mittelman, James H. (1998).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Resistance Politics". *Third World Quarterly*. Vol.19, No.5.
- Offe, Claus. "New Social Movements :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 Winter.
- O'Riordan, Timothy (1995). "Frameworks for Choice : Core Beliefs and Environment," *Environment*. 37, October.
- Schmitter, Philippe(1997). "Civil Society East and West," in Larry Diamond et al.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 Themes and Perspective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aw, Martin (1994). "Civil Society and Global Politics : Beyond a Social Movements Approach". *Millenium*. Vol.23, No.3.
- Sunderlin, William D. (1995). "Global Environmental Change, Sociology, and Paradigm Isolati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5, No.3.
- Walker, R. B. J. (1994). "Social Movements/World Politics". *Millenium*. Vol.23, No.3.
- Zurn, Michael (1998). "The Ris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World Politics*. Vol.50, No.4